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이장혁
편집장	강인숙
주최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 학보	(☎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아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4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253호

THE OE DAE HAGBO

제 582 호 1992년 5월 26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총학생회사퇴 직원노조파업

외대의 주인으로 우뚝서기 위한 진통

26대 총학생회 사퇴...11, 12일 보궐선거 실시 5·6월 투쟁으로 신뢰속의 학생회 건설이 과제

지난 21일(목) 서울 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제26대 총학생회에 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임이 된다면 부총학생회장인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하계교과, 분신일이 된다면 26대 총학생회가 총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신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38%의 신임과 61%의 불신임으로 26대 총학생회가 총사퇴를 하고 오는 6월 11일, 12일 양일간에 27대 총학생회 총 부총학생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듯 61%라는 불신임이 나오

게 동부를 진행해도 인사장을 조정할 학교는 불과 몇몇 학교뿐이었던 것이다. '다들 다 들어왔는데 인사장은 손대지 말아달라'라는 식의 대학당국의 예년과 다른 동부의 대응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본교에서도 총학생회 개과 남부까지 실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장을 조정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예년과 바뀌어진 대학당국의 대응구조를 정형화해 파악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외대발전의 문제와 함께 동부의 총학생회 개과 내외 오지 못하면서 일관 학부들에게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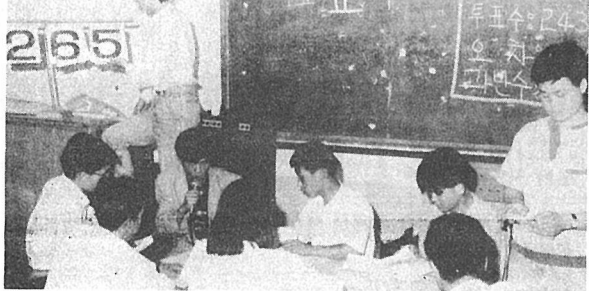
업들은 27대 총학생회가 자리잡을 때까지 26대 총학생회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일경도 5, 6월 투쟁의 공동과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지만 이후 사업에 있어서 단결성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27대 총학생회가 26대 총학생회의 불신임의 원인을 분석하여 학부들에게서 신뢰받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다' 한다. 그리고 이상 대우평생에서 관중반의 함께 학생들의 심추선 위상을 회복하여, 신배들의 피맛으로 진심된 학생회를 창

보면, 공식적으로 '위임장'이라는 제호아래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대학당국으로 하여금 직원노조와의 관련한 협상만을 거둬들여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직원노조가 파업당시 전면으로 내세웠던 △직원의 인사·경영 참여 △유니온-샬의 인정 △대학 발전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직원노조가 학원의 일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 중 유니온-샬 제도는 이미 직원노조측이 기존의 오픈-샬제도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대학발전 추진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90년 단체협약제시 합의된 '공동노력한다'는 부분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외에 직원노조측이 제시한 협약안 중 주요요구사항으로서 대학당국이 수용할 부분을 살펴보면 △소속직제 선 △정년연장 등이다. 복과개선에 있어서는 직원의 해외연수인원을 기회의 9명에서 1명을 추가한다는 것과 학자급 보조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자급 보조'는 90년 당시에 '협약한 제77조(학자급 지급)'에 '직원의 피려나 손익 이후'라는



사상 앞으로 이전된 상태이고, 총장은 대학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원화된 구조를 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단이사회의 선임에 있어, 이사장의 친인척의 수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5년의 2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2

학원의 일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반사항 마련이 쟁점 교수, 직원, 학생의 강고한 연대의식으로 학원자주화를 추진



지난 21일(목) 서울캠퍼스에서는 제26대 총학생회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게 된 것은 기존의 동부 평가와 총학생회장의 사퇴에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8일(월) 언론회의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다수 학부들이 을 동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부측 인사들 문제와 장기적인 외대발전의 문제와 제기된 설문조사 결과, 동부측을 내외오지 못했던 점과 총학생회 개과 남부 이후 학부들을 관개치 확인되고 이후의 구체적인 발향점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 등으로 인해 올해 동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많은 사립대학에서 협

선에 불리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부 파정에서 총학생회장의 사퇴 표명은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을 때문에 26대 총학생회 불신임을 받아 총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학대의 많은 역량이 보궐선거에 투입되면 5, 6월 투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 단결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에 대해 외부총학생회장 사삼준은 "현재 개회되고 있는 전대협 출범식을 조직화하는 것과 6·3 투쟁 1주기를 기념주행 행사 등의 사

직원노조 파업 24일 세계노동절인 5월1일(금)을 기해 전대협이 출범한 본교 직원노조(이하 직원노조)는 지난날 대학당국의 단체교섭이 이제 막 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18일(월) 직원노조와 대학당국은 새벽2시 까지의 단체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 51개항 중 27개항을 가합하여 장기간의 파업이 곧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다. 이날의 27개항 합의는 지난 13일(수)이강희 총장 앞으로 보내진 본교 동원영원의 이숙경 재단이사장의 '단체교섭을 이진대로 대학당국이 수행하라'는 권유에서 비롯된 급진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재단 측이 이미 불만을 갖고 정태들은 상에서 협적적으로 취해진 행동인 만큼 실직적으로 직원노조측의 92년 단체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행위였다. 먼저 이날 이후의 단체교섭상에서 나타난 대학당국의 협상태도를

단체교섭이 있었으나, 올해 직원노조측이 선정한 협약안에 따라 단체교섭이 삭제됐다. (39년 참조) 또한 '정년연장에 있어서는 "직능별 학비사항을 완화하라"'는 직원노조측 주장에, 대학당국이 이를 수용하여 각 직능별로 규정해 있던 정년을 1년씩 연장하고 있다. 결국 이날 단체교섭을 보면 90년 단체협약안에서 가인용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려는 대학당국 태도에 대해 직원노조측이 좀 더 거열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90년 협약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경영면 참여에 있어서는 90년 단체협약시 6대3의 비율로 직원이 참가한 것에서 올해 4대3(화) 본교 정장이 개정된 재단이사장이 협상을 아무런 노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상태이다. 이의 함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총장, 학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도 본교 정

명을 전인적 중에서 늘릴 수 있는 독배적 강화를 보이고 있다. (제25조) 또한 총장은 물론 보좌교수, 교원, 임시교원의 임면권 마저도 재단이사장이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상정했다. (제43조, 43조의2) 이 아울러 대학의 실질적인 경영권인 총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임면권을 '임면제정 동의(제52조)로 축소하고, 교원의 정제권도 재단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9조) 이처럼 올해 직원노조의 가장 핵심적인 투쟁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정제, 재설(사립학교법 제67조 제1항, 2항에 의해 교육부로 이관)부분의 이미 재단이사장과 교육부로 이전된 데다 현재 대학당국의 협상은 아무런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고한 연대의식의 형성에는 상당한 힘의 결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대외노조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결국 현실기에 있어서는 학원자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인 학원자주체의 연대에서 해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오늘날 한국의 대학학자의 철두를 밀려라 자인하는데서부터 학내 제반 학요소를 일으킬 수 있는 강고한 연대의식의 형성에는 상당한 힘의 결여를 일으키는 재단과 교육부의 부조리를 혁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환 기자)

5.29~5.31, 한양대학교

그 무한한 감동을 느끼십시오



백만학도 여러분을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백만의 전대협에 대한 사랑을 모아 스스로 주인공 참여로, 민주정부 수립의 당찬 의지로 달려 오십시오. 구국의 강철대오는 백만의 이름입니다. 백만의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자리, 투쟁의 신화를 창조하며, 승리를 화신하며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가는 자리, 전종련 건설의 주춧돌을 쌓는 자리 전대협 출범식이며 백만을 위한 무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백만의 참출들이 그 번지리를 사랑 투쟁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제6기 의장 대 세준

장대같은 비가 내리는 부산대학교 운동장 너머로, 5만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제5기 전대협을 출범식을 치르기 위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미 비탈로 흥건히 젖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줄줄이 내리고 비가 오는 탓에 한기를 느끼기도 하였습니

5월29일 제6기 전대협이 출범합니다. 전대협의 여섯번째 출범, 그 무한한 감동을 느끼십시오.

여섯번째, 불쾌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6 전대협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회의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 언론의 선봉



조국을 싸우고 있다.

사설

멀리 뛰기 위한 과제이다

26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신인 투표에 의해 불신임이 되면서 충성심을 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비관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대외로 주방정으로 계속되다가 보결선거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많은 과제와 대중간부들과 학생들의 이해에 놓여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을 제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강한 신뢰속에 학생회를 우대할 수 있도록 현재 실추된 학생회의 위상들을 강화해내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더욱 깊이 있고 추진력 있게 외대발전의 문제들을 공유했 나가고 진의대인의 힘으로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노조의 장기전에 걸린 파업도 대학당국의 많은 우려속에서 논의의 바다는 전진을 내어놓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다가 이제 조금씩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단체협상의 타결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진정한 학원의 일주제로 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계기로서 멀리 뛰기 위해서는 길게 줄었다가 뛰는 것처럼 현재의 대외의 아들들을 위한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덩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6.3 투쟁이 남긴 교훈처럼 수많은 대중간부들의 구속, 수배에도 불구하고 뜻조각 학생회를 지켜왔던 박원수, 손구치는 외대의 기상을 다시금 되살리면서 전대협 출범식 참가를 위한 기동전대로부터 투로하고 조직화하는 사업들과 6.3투쟁 1주기 기념 사업, 자주·민주·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적으로 이러한 학내 정세를 고양시켜가면서 대중단결을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외대인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학원의 발전과 민주정부 수립의 원천을 되찾아내고 실천속에서 하나씩 정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나 문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자기 자리를 상기하라

또 하나의 사건이 갈려져진 각본에 의해 역사의 뒷배이지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저절로된 인기부인의 폭력선전을 살포시킨이 사법부의 전인 집행력을 지켜왔던 판결로 마무리 되면서 또한 민 사법부나 권력과 자본에 놀려 제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거머쥐고 있는 인식을 위의에 새삼 놀라게 된다.

군부재정 부장 투표가 이치로 중회의 양심선언으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정국을 휩쓸고 있을때에도 그 행여우부를 떠나 무 조건의 발명으로 무마하리던 작태를 바라보던 민중들의 그 분노가 채 가라앉지도 전에 감히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형태로 전행이 된 국가정보기관 소속 기관원인 인기부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개회적인 폭정 후보의 폭력선전을 하는 타락 불법 선거 양태가 사법부의 애정어린(?) 보로 민중들의 시선에 시 빛이날 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총선거가 된지 단 하루만에 전교조를 무자비 탄압하던 전행이 발하여 감기정열사를 취부한 가스 전식사로 약아갔으면서 자신은 외대의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 했던 전행식 공안내기에 대해 개관과 담가무로 항의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억측을 다부리며 언론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배, 검거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구속된 학생들은 고소인도 없는 폭력법으로 처리가 되어 최고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이렇듯 굳이 길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사법부의 힘이 어떠한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땅의 역사를 꼭 살펴보면 권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튼튼한 방패막이가 바로 사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것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민중을 바라는 이의 외침은 법의 공정성이고 양심이고 다 내리고 외침에나와 가두고, 민중들을 탄압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력의 파편들에게는 턱없이 후하기만 한 가리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의 역할이란 말인가.

흡산의 소리

학교당국의 보다
적극적 지원을 바라며

대학생활 협동조합에서는 올해도 학계학원수원을 개편한다. 방학기간동안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영화회와 동기수업을 하게 된다. 또한 오후시간 계속해서 어학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은 어학공부를 할 수 있는 학장을 마련하고 이에 우리문화와 컴퓨터, 운전권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젊은이들이 한터 도어 함께 숙학하며 공부하며 생활하는 공동체생활의 좋은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 행사는 본교생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외대의 대표적 행사이다. 작년의 경우 20여개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연수를 받았으며 돌아갈 때는 외대에 대하여 정말로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돌아갔다. 올해 또한 전국 1백여개교대로 안내서와 포스터를 발송했으며 숙식들이 접수되고 있다. 대형합에서는 학생들에게 수강료로 25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기숙사 숙식비와 수업료에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 홍보비와 특강비, 행사진행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외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학생들의 학업진전에 도움이 되는 학생 자치활동으로 당연히 학교에서 보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든 25만원에서 학생들에게 3만원씩 더 부담시키라고 한다. 배반적인 법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을 이 학교에서 이렇듯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총장님은 학생회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회가 대외적으로 학교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라고 당부하셨다. 총장님 / 총장님의 말씀은 학생회 실무자의 손에서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영민 동학-아프리카어 대 학생협동조합장)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이제 한달 정도 지나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찾아온다. 방학기간은 방학, 그것도 겨울이 학동하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서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심리적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각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를 무리하지 않으면서 달성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때마다 목표를 대두된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서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학기중에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것을 보충해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누누히 강조해왔던 것과 같이 외국어 특히 영어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로는 학기중에는 학교수업중에 매달리다 보면 일반교양서적이

외대발전 틀 속에서 실마리 찾아야

에전 같은데 못이 만발하는 계절이나, 계절의 여왕이니 하며 떠돌아다니는 학내에서 타학과 축제를 떠나며 마트만 볼만큼 만만하고 있을 5월, 어느덧 그 아름다운 계절도 끝을 향해가고 있을만큼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있고 곧 방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학기를 정리 하겠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리도 머리가 묵직한 느낌을 지니며 수가 없을 까, 어찌할까 지나가고 떠도는 많은 말들, 일들, 등록금의 총학생회 계약파괴, 총학생회장 사퇴, 외대발전과 학교 이전 문제, 학교노조의 파업 등등 무엇 하나 나의 머릿속을 정리 시키지 못하고 흘러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정라....

저금에 있어 과연 무엇이 선결과

제이고 무엇이 해결 고려인가. 학교에 등록하고 나서부터, 학내에서 이루어진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줄곧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볼 대동, 물결전의 발발이이 떠돌아다니는 말과 같이 이것 또한 '총학생회'인가. 굳이 하나 하나의 사건들이 각각의 실적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하지만 한 외대인의 개인으로 써 이러한 것들이 그저 개개의 이익집단의 의사표현을 양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 곳 외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공공히 하나하나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 그래서 / 총학생회장은 자신이 취업을 수행하다보니 학생들이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하자, 평양집사도 제 세웠던 그만이라니까, 또 등록금 문제는 다른 학교보다 외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금을 내고 다녔다고 하니가 옳을 수 있다고 하자, 학교 노조 파업은 기초적인 일로에 관계된 것이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좀 지저분하라고 해도 비록 신문에 대대적으로 쓰여지는데서 수업은 듣는다고 떠들다라고, 학교 직원 아저씨와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이기애 이해하고 하자, 그러나 평생사 수업시간에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 "외대는 4, 5년이면 저기 하바라 대학중에 속아도 될 것이다"라는 대담한 말을 속해서 많은 아니

전 외대발전과 하나의 광범하고 걸었던 외대발전과 학교 이전 문제가 거론되 이토 학내에서 끊임없이 보내온 '외대'이라는 책자에 그 시계가 죽은 건지 아직 살아있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서 그런 속사건들이 많았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이 해결 고려인가. 나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의 해결점을 외대발전에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 학교노조 파업 때문에 학교가 쓰러지기를 방불케 한다고 외대사학/외대발전의 의미에서 본론 정정식, 기획처장 및 총후두 등에 스텝을 모아다 버리고 나머지 장소에는 적어도 자신이 있던 곳에서만은 휴지를 줄자, 중

이에 물을 통해 뒤져,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원사중이라서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데 학교 언론사는 순박한 비관론, 총학생회장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자, 우리 학우들은 개개의 사건들에 있어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너무 한 개인이 끼여들기가 규모가 크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그마한 관심에 앞을 안 차다만 담당자한테서 화를이라도 하는 때로는 적극적 관심도 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니면서 우리는 외대발전을 이야기 하자. 개별적인 단체로써 외대발전을 논했던 많은 학우들도 이제는 정말 지친 것 같다. 그들에게 우리는 힘을 주어야 할 것 같다. 막상 그 문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것을, 시작할 그들이 전정 우라들의 선구자일 수 있다.

나는 생각해보면, 아무리 저쪽도 군사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분명 우리 외대의 땅이라야 2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한 작은 이유로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역이러면 우리나라 학교들의 우선 순위를 내세워 학과별, 군사지역이러면 그쪽에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앞으로 몇몇 후의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는 위대한 학교 출신의 명예로써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자. 물론 이러한 이야기나 이름은 학우들만의 이야기라 아니다. 이는 이분 동이나 참신이나 각각의 특성을 지니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갖자는 의미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대발전이 실은 것은 학교 이전을 외대발전에 일부가 해 하는 아니지만 가장 큰 걸림으로 삼아 요소요소 외대발전이라든 다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생각과 명칭하고 냉정하면서도 논리적인 실행하는 다소 교사직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연승수 상경/계4)

독자만평



동족상잔

(이명호 동학/마인어1)

적어도 계한 맞았다고 해서 제자들을 2.3년씩 구속시키는
선생님은 아니다.

—육십이—

학과 공부보다는 인생을 먼저 고민해보라시던 사범식 선생님. 사망합니다.

—영어91—

정원식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선생님 싸람해요 선생님.

—복학생—

나에게 절망이 아닌 선택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EC92—

나이는 이제 갓 세상이지난 힘 있는 참교육의 선봉 전진계 전교조 28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참교육 1세대—



주제: 나의 진정한 선생님은.....(전교조 3들을 맞아)

선생님, 지식의 전달만이 아닌 인생 선택에서 그 무엇들을 전해주시려면 그 몸짓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외돌이—

나의 진정한 선생님은 참교육을 실천해주시는 누구가 문교부장관 제직이 해되고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그가 총리로 남아 있기 때문인가요?

—을—

아직도 그들은 나를 보면 공부하러 하신다.

—낙재생—

제자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여기는 선생님. 기억속에서만 존재하시는데, 대학생이 된 지금도 진정한 선생님을 찾고 있다.

—새내기—

달린 교문을 함께 열어요.

—E91—

조국의 힘을 느껴 봅시다

92년의 정세속에서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이 정치의 구심지인 서울 한양대에서 5월 29일~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은 10여만 학우들이 결집하여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하고, 민주 대연합 건설을 촉구함으로써 현실적인 힘으로 민주 대연합을 강제해 내는데 92년의 정세와 맞물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대연합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올 전대협 출범식이 92년에 가지는 독특한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외대 발전의 큰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 우리 학교의 화원 자주화투쟁을 민주 정부 수립의 당면적인 한자리를 끝내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출범식 준비 과정 전면에 출려야 할 것입니다.

출범식 준비 일정

1) 1차 준비기(5월 18일~21일)
파외장 중심으로 기출단위와 내용 공유
준비팀 구성(과단위까지)
1차 기획 대자보
1차 선전 시기

과단위 인원 1차 확정기
전체 교양 작업(결의 대회)

3) 총력 집중기간(25일~27일)
전체 인원, 사수대 최종 점검
2차 기획 대자보

5월 26일—전대협 출범식 참가를 위한 1학년 대표자회의
5월 28일—전대협 출범식 결의를 위한 전체 황산 500간부총회 및 국가보안법
철폐 강연회

5월 29일—4~5시 전대협 출범식 참가를 위한 위한 강총회
5시30분 전대협 출범식 애국외대 통일황산 출정식

※국가 보안법철폐 및 이승만 대표 석방을 위한 황산 5천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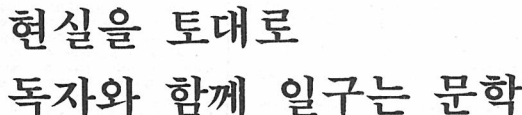
2) 2차 준비기(22일~24일)
선전사수대 집중 모집

4) 28일: 출정식 및 지역주인 선전전

제26대 승리하는 총학생회

제13대 일대대의 총학생회

3758



그간의 민주증문학은 대부분 단
위원칙에서 그 소재가 머물렀지
않음으로 해서 대부분의 독자들
도 하여금 친숙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요인이 없지 않았던 것
이다. 민주증문학의 시각화
대상과 소재의 다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들의 민주증학
의식에 의한 감각변천으로부터
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
으로는 민주증학의 인간성
원칙적이고 사회보편적이라는
대 나이가서는 전일류적인 것
보다도 끌어올린 매력만이 가능
하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발
견되었던 미국의 흑인 폭풍이나
민주와 휴전 같은 것도

90년대 정세변화로 새로운 양식 모색
다양한 소재에 예술성이 결합돼야

민중문화의 대중성 확보
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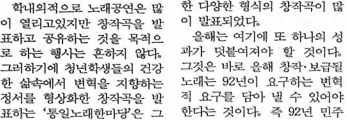
그것의 첫번째는 예술성의 문제이다. 물론 인간의 민중문화화되지 않고, 그로써 예술성을 배

〈4〉자리 바꾸기

이 놀이는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되며, 서로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만 급할 뿐 아무 뒤섞일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부〉

일대발전을...



으며, 이번 통일노래 한마당을 더욱 강화·발전된 노래패를 건설하는 계기로 삼아왔다. 또한 창작에 있어서도 '조직창작'을 통해 위에서 말한 내용을 그에알맞은 형식으로 결합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노래의 창작을 통해 각 단위 문제조제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에 한다.

한편 통일노래한마당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후에 발표된 창작곡들에 대한 대중적 보급을 계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가야하네’ ‘사랑해요 선생님’ ‘정원식’가 ‘동충련 진군가’ 등은 본교 노래패의 창작곡 중 널리 보급되어 학생대중들 사이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들이다. 그러나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불리워지지 않는 창작곡들도 상당

92년의 변혁적 요구를 담은 노래 필요
노래패강화·창작곡보급으로 성과 높여야

가치가 더욱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오는 6월4일(목) "92애국외대 통일노래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며, 현재 참가자들에 대한 신청집수가 끝난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올해로 5회를 맞는 '전국대학생

정부 수립투쟁을 힘있게 노래할 무쟁가와, 자주적 학생회 등 학생대중들의 생활근거지를 강화·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생활가요 등이 적절한 형식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을 것이다.

음해 본고 통일노래한미당의 경우, 현재 11개 단체 정도가

수 있다.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노래책 발간이나 테이프제작 등을 생각해 볼수 있으며, 이런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하내 방송을 이용한 보급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고민과 실천작업이 있어야겠다.

통일노래한마당의 발전과정과 올해 통일노래한마당이 갖는 의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본교에서의 준비상황집점을 통해 더 발전적인 행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가 단체의 수도 예년에 비해 훨씬 많아졌고, 각 노래패의 창작역량도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번 학기 들어오면서 중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적 체험과 정서를 노래를 통해 형상화해 내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며, 창작의 성과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

통일노래한마당은 청년학생들이 그들의 다양한 삶속에서 소망하는 점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창작곡의 절대부족을 실감하면서 88년 '서총련 통일노래한마당'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서총련 통일노래한마당은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요구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성과물이었고, 이를 계기로 '제1회 전국대학생 통일노래한마당'이 시작되었다.

노래창작단이 중심이되어 각
단위 노래패에 문예이론을 보
급하고 창작역량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한
성공과도 말할 수 있겠다.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단위 노
래패는 창작역량 축적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

세라 할 수 있다. 통일노래한
마당의 의의 또한 개개인 또는
집단의 주체적인 노력의 결과
물인 창작곡을 통해 청년학생
전체의 통일된 행동을 모아내
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은’
‘우리들의 땅’ ‘애국의 길’ ‘하
나가 된다는 것은’ ‘얼굴 깨부
리지 말아요’등의 창작곡들이
모두 통일노래한마당을 통해
발표된, 우리 귀에 익숙한 노
래들이다. 구호성 짙은 투쟁만
을 강조하던 초기의 노래들에
비해, 4회를 맞은 작년에는 학
생대중들의 삶의 근거지에서
찾아낸 풍부한 정서를 소재로

- 남북불가침선언 채택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 빗발처럼 쏟아지는 빗(b) 큰쪽 난개를 멈춘시켜 비린 자동차를 사동(使動)으로 요하지만 본래 사동시에는 꼭 약한 느낌이 들어 쉬운 우리 한 것인데 ‘-하다’면 충분하게 쓰자.

am) 하나가 그의 전투기 오
것이였다.

만들 때에는 ‘-시키’가 필
 필요가 없다. 한자말이 뜻이
 말을 붙이려는 심리가 작용
다. ‘구세화하교’, ‘망중해’로

우리 몸, 우리 농산물

제 4 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농협이 전국 대학(원) 생
여러분들의 논문을 원상공모합니다.
우리의농업·농촌·농협 발전에 관한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논문공모에
패기있는 대학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는 제 15세 중입
가 21세를 향한 노입의 발전방향
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노입의 역할
다 지역적응 향상을 위한 노입의 역할
라 노인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교육의 발전방향
마 노인실업 대응과 우리 노인 교육운동
는 **출문 자료**: 전국 대학 및 대학원 교육자료
는 **출문 자료**: '92년 9월 5일 제15기 노인포럼 자료집
다 **출문 자료**: '92년 10월 10일 경상 지역개발포럼 및 노인실업문제 제1차 토론회 자료집
는 **참고 자료**: '92년 10월 10일 제15기 노인포럼 자료집
● **출문 자료** 1권: 각급 300 만원의 상해
● **후속 자료** 2권: 각급 100 만원의 상해
● **가** 자료 5권: 각급 50 만원의 상해
는 **출문 모음**
가 **출문 모음**: 200 개 원저서 80 개 내외
나 **출문 줄**: 노형출판사 출판물로부터 사출물로서 출구 줄종로 1 개
가 75 만지 우편번호: 100-707
7. 기 내
는 논문 제출 연차치를 범위 제정중에서 1 통 서류로,
● **출문**은 논문은 일제 원저서로 붙여미 단점의 저자서는 본부
소유함
● **출문**이 인쇄 원저서는 사출물 상 없음,
● **다**사출물 노형출판사 출판물로부터 사출물
(출처: '73-7-9-21, '출문' 7714)

 농민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농 협

명수당 明水堂 **미래지향적 교육**

3760

전교조 해직선생님의 일기

교정에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92년 2월 ○일

[illegible]

그 한 위적이 예뻐도 볼 수가
 없 았는 보듬은 들을도 듣지
 못하고 았는 자식으로서 존재
 를 인식할 수가 없다. 부모도 변
 화하는 자를 사랑 할 것이 하고
 았는 것은 았는 바에 맞게
 또 고통이다. 또 고통해야 상
 실하고 았는 무력함이 전조
 해지고 았는 한때도 어이하
 한 시편이라야 한단다 시편
 의 한 말은 았는

그 말대로 참으로 고통을 았
 는 것은 거짓 았고 후회를 았
 내 주 았는 원한에 았는 성
 남뿐이다. 전조를 보사기
 고 해직자를 학교로 보내
 시킨다 고혶고 후회를 았는
 사 망의제까지 았는 았는
 정을 았는 았는 한 현실은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다. 비록은 았는 았는 았는
 전조로 았는 성원 속에 았는
 는 생애이기에 았는 았는
 지게 았는 았는

생애로 갔다 았는 작은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의 마음을 내의 아침에 부모
 제 전하 았는

22년 3월 6일
 참으로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았는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대답
과 교사의 질문은 전혀 나왔다.
국 단 한사람의 정거구독자
확보하지 못하고 바둑실의
등불 두드러진 일광만 붉힌
‘사리굴로 돌아왔다. 교사의
존심 맞았을것까? 전교조 해
교사로서 그러한 일을 하는
에 대한 한사람이있을것까?
일단 정면 달린 정면으로
캄캄을 만나고 있다

9월 3일 ○월
‘사리굴로 영입을 위해 학
를 찾아와서 보니 어떤 어떤
는 복직한다? 다른 학과
저를 복직한다 있다. 복직
나를 해 인사를 하고 거기
학정들은 우리들의 모두가
과 있을 우리의 제자리에서
과 보인다. 오늘날 저쪽
찾아있다. 미미 언뜻을 위해
않고 찾아간 탓인 지 사한

말하면서 교과 선생님이 자
를 불러냈다. 그때 교장은
옆에서 계신 조경순 교장이
분을 정색을 하며 하는
“그 사람 선생님이야.”
오늘 따라 유난히 잘
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하루였다. 물론 그 학교
독자 한 명도 확보하지
않았다.

92년 4월 0일
93년 3월에 있는 화의
들이자 수 있을지? 그 어느
보다 기다려지는 93년이
는 '교과개편'과 '완성'을
위한 전조로 동부초에
경험자들이 1년마다 강
제 개회되었다. 오늘 행
차에 이르렀다 '묘담' 민족
이 있었던 1989년이 서
기되었다.

암울했던 5공화국 시절

[illegible]

문화
융합

마침내 하나됨을
—정—

제3회 일주제 통일
우수 작품상을 수상
다.

노동절경에서의 노
치열한 삶과 투쟁,
속에서 피어나는 다
예를 작가의 재현을
그리고 있다. 노동자

노동자로

는 세상을 위해 고통을
는 그들의 모습은 오
한실의 가장 본질적
있인가에 대해 깨달
우리가 가는 오

‘새날’ 판
민정권 초창기의
핵심장들을 엄밀하
게다 국내에서
서 수상하기도 했
에 대한 인터뷰 내
발표장들을 위한
가족에게 보낸 그
식의 글, 죽음편,
내용들이 수록되
를 통해 고난속에서

다짐하는

‘과

이 푸경하
같은 노동
운동이 부
를 만들
(전2백원)

같은

정부 위임
전민련 정
2. '로바르
을 유약에
을 김근태
를과 그의
3. 수필가
그의 강연
2백원)을
도 격이지

않고 민주주의 수
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생했던 그의 모습을
다.

《새날바람》

내일을 빛가
—전국대학학생연
전국대학생문학연
학자들 그간 장
결중 수작을 선
시집이다.

친한사람들이 실
만나는 많은 이야
들을 글로 옮겼
밝은 내일에 대한
을 사랑하는 마음

《힘바람》 김

푸르른
추석지수레》를 다

과 통일조
판없이 두
만날 수 있
5천8백원)

는 칭춘들
연합 지음
함 2천여
했던 문예
하여 실은
가 가면서
들과 느낌
그속에는
망과 조국
숨기고 있
3천5백원)

5월

와서

‘주제글’을 모읍니다

·주 제:그대여 곧세게!
·원고마감:5월29일(금)

○ 분출하는 화산의 용암은 뒤로 흐르다 수많은 굴을 만들고
○ 이 선형화하고 절경이로써 화려하게 꾸민다. 그들
○ 월의 도구를 거리를 향해 내리던 용의 뿔뿔, 뿔뿔,
○ 천들, 후두들의 뿔뿔은 함께 어득은 어득에서
○ 용 하느님 인간타고난 눈이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개에서 이 파도만 사할기 가슴
○ 있을 수는 더욱일 없습니다. 이 머리가 사할기 가슴
○을 이제 '그대'에게 천하의 머리 잡시다. 아픈 몸
○ 뿔뿔한 그대기만 천하의 가슴 잡는대. 또 더 어떤
○ 가슴을 몸뿔 뿔뿔 다나면 이 머리와 천하의 뿔뿔과
○ 뿔뿔을 뿔뿔하고 있을 무리의 도구나, 선, 지혜와, 서
○ 글자와 그이들의 뿔뿔과 가슴 태우고 깨칠 우리
○ 모두들 '이'에게 '그대'의 용기와 사랑을 전합니다.

○ 끝나는 용기와 쓰지 않은 천하의 뿔뿔 머리
○를 거둬드립니다. 선, 수, 일귀를, 뿔뿔과
(자 7~10대)뿔뿔 이러한 형식의 글이로써 충수나
○다. (권희남)

꽃미고 새우는 오월 / 사월의 연풍을 때론인지 초록이 유난히 푸르른 초록으로 넘겨지는 오월이다. 하지만 푸르름과 함께 많은 일사들이 산화하고, 또한 그들의 쓰러짐 속까지 푸르름 속여 어는 길 이기도 하다.

오월의 상원전 모습을 알고 6월 15일 우리는 '목련과 장주 성 신촌'이라는 이름과 대 장교로 왔었다. 주말에 이 대장관 하대 떠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은 참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은 바빠서 기분 이 좋지않았다. '내가 무엇 하고 있는가' 하고, '무엇이

오월 노래에서 등장하는 도나 도정일 한수들의 '죽을 줄을 안다' 단, '죽을 줄을 안다' 이라 그걸 조 '죽을'이라는 어의 한쪽을 보면 장교로 보지않을 게 한 편이 고 일 수도 가려진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장주 진남포하포에 갔을 우리를 하포에 계유곡과 근친의 부형질과 가 가 있는 곳이며, 각자 자신의 마음을 호 보신다는 바에 대해 이야기되었다. 그이에 부하키질신, 부하소, 부하소

[illegible][illegible]

게 되었다.
이런 항거
중에서 이뤄
아직도 오
되고 있다.
선열들의
투쟁의 역사
에서는 지금
들이 너무
많은 지금도
중들의 민주
경정과 피땀
라.

자
22)

분노의 눈물로 다짐하는 푸르른 5월

‘광주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리는 작년 오월의 분노와 합성
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오늘을 살펴보는 시
간을 가졌다.

전남대에서 하루밤을 지새고
다음날 아침까지 서울로 곧바로
출발해 국립묘지에 출발했다. 장
군동장 장제승과 나를 수 없이
오리나 어렸던 막 사촌 도복재
나비 의외로 많은 장제승에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전남
대에서는 대학이 아니라 국민대
라는 것이다. 자마다의 기념물을
애 새우고 집회를 갖기도 하고,
나무를 तो 5·18항쟁기록지를 우
리의 때를 되새 킵기도 했다.
우리는 광주부대현역자를 통해
많은 장수부대현역자의 인간이하
의 상상을 할 조 나조차도 꿈쩍
한 민행에 대해 본능을 금할수

를 죽 줄줄 보았다.
목숨의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자기, 그
수순진, 대가, 도자
죽을 거 같기도 했다.
경연 사람들의 이름,
선, 행적 등등 여러
금루를 보니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생활을 하던 일만
아니하고, 좋은 사람
마지막 일을 충실히
했었다. 그들은 시위
하다 길을 가다가,
상은 현행법을 고쳐 병
오라고 부처님 학살
이었다.

많은 인쇄매체도 볼
지는 존중해서 또 불
도움이였다. 당시 차
단은 100여명의 표
조 100여명에 불과
한 한 해들이지만
해 전쟁이 세력 열

[illegible]

리라는 생
 이 어린 땅
 2년전 광주
 로 광주만의
 전철의 외
 게 되었다.
 날이런 항거
 속에서 이뤄
 아직도 오
 되고 있다.
 이 선열들의
 투쟁의 역사
 배서는 지금
 그들이 너무
 붉은 지금도
 흔들릴 민주
 걸짐과 펴뒀
 다.

자
 32)

1992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공고

대학원

(961-4104, 962-7117)

5. 모집과정 및 학과,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5개계열 37개학과): 각 학과 약간별
이론학계:영리,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서반아
어, 아랍어, 이탈리아, 힌디어, 팔레어 인도네시아
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국어국문론, 언어학, 동유
람어문학학(신설)
지역학계:아주, 중남미, 동종, 동구, 북미, 아프리카, 서구지
역연구학과
사회과학계:정치외교, 행정, 법학, 신문방송, 무역, 경제, 경
영,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 사학과
이 학 계:수학, 물리학, 화학, 전자계산학과
나. 박사학위과정(4개계열 23개학과): 각 학과 약간별
이론학계:영리, 불어, 독일어, 중국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
랍어, 노어, 국어국문, 언어학과
사회과학계:국제관계연구, 경제, 법학, 경영, 정치외교, 행정
신문방송, 무역,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과
이 학 계:물리학, 화학, 수학과
2. 원서교부:1992년 5월 26일(화)부터 6월 11일(목)까지
3. 원서접수:1992년 6월 18일(일)부터 6월 11일(목) 17시까지
4. 전형일시:1992년 6월 19일(일) 오전10시부터
5. 전형방법:필답 및 구술시험
가. 석사과정:1)전공, 2)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구술
시험
나. 박사과정:1)전공, 2)영어, 3)제2외국어, 4)구술시험

무역대학원 (야간)

(☎ 961-4109, 962-7118)

2.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명

3. 모집학과:

가. 경영학석사; 무역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나. 경제학석사; 국제경제학, 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1)논문, 2)외국어, 3)면접

나. 연구과정; 1)서류전형, 2)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1992년 6월 1일(월)부터 6월 23일(화)까지

5. 시험일정: 1992년 6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비 상관계 전공과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함.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시에 특전 있음

*일부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 특 별수대함.

***재출서류(각 대학원 공통)**

① 입학원서(각 대학원 소정 양식, 명함합산시 5매 부락)

② 대학원(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수여 및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각 1통)

*무망,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에 지원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과과에 문의 바람

주소: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진철1호선 회계역(의대입하차)

교육대학원 (야간)

(☎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명
2. 전공분야
어문계: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일본어교육.
서반어아어교육
인문사회계: 역사교육, 윤리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철학교육
실업계: 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 1) 필답시험(전공, 2)면접
4. 원서교부: 1992년 6월 1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5. 원서접수: 1992년 6월 8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6. 시험일정: 1992년 6월 20일(토) 오후 2시

- * 현직교사는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 대학을 상취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함.
- * 초·중등교육 현직교사, 교감, 교장 및 장학생, 연구사, 교
육행정직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는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 전형할 수 있음.

韓國外國語大學校